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일자리 안정화 모습...2월에 6만 3천 개 고용
- Bloomberg: 연준 두 고위 관리 “이란 전쟁으로 불확실성 존재”
- Bloomberg: 연준 이사 Miran, “이란 전쟁에도 금리 인하 필요”

[미국 금융]

- Bloomberg: 한국 증시 급락, 레버리지 투자 손실로 패닉 상태

[중동 위기]

- Bloomberg: 중동 위기의 핵심 자원은 오일이 아닌 ‘식수’

[물류]

- Bloomberg: 중동 위기로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 예약 안 받아

[무역 전쟁]

- WSJ: 연방 재무장관 “다음 주부터 글로벌 관세 15% 시행”

[주택]

- CNBC: 지난주 미 모기지 신청 수요 11%나 증가
- Bloomberg: 미 주택 소유자, 오래 거주...평균 12년

[오일]

- YahooFinance: 일가 안정세...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보호하겠다”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mpanies Added 63,000 Jobs in February, ADP Data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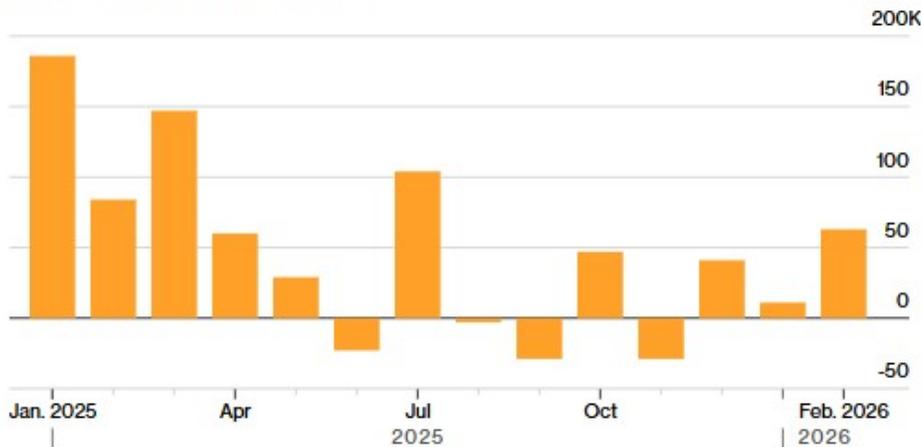
미 일자리 안정화 모습...2월에 6만 3천 개 고용

- 2월 민간 일자리가 지난 7월 이래 가장 많이 추가되어 미 일자리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 ADP 리서치의 오늘 수요일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일자리가 6만 3천 개 증가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5만 개를 웃돌았다.
- 이 보고서는 2025년 거의 일자리 증가가 없었던 이후, 노동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직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일부 고용주들은 그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개선된다고 판단하며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감세 정책은 투자와 고용 증가에 추가적인 힘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연준 관리들은 대체로 일자리 시장을 안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으며 당분간 금리는 동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고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번 주에 관리들은 “이란 전쟁이 미 경제에 주는 여파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US Private Firms Ramped Up Hiring in February

Companies added the most jobs since July last month

Change in private payrolls (MoM)



Source: ADP Research

기사

Bloomberg: Fed's Williams, Kashkari Point to New Uncertainty From Iran War

연준 두 고위 관리 “이란 전쟁으로 불확실성 존재”

- 두 명의 연준 관리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또 하나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핵심 질문은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 라고 설명했다.
-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 Neel Kashkari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존 전망이 예전만큼 확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그리고 뉴욕연준총재 John Williams는 이란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제한적(reasonably muted)”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더 둔화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2026년 말에는 2.5%, 2027년에는 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약 2.5%가 될 것으로 망했다.

기사

Bloomberg: Fed's Miran Says He Still Wants Rate Cuts Despite Iran War

연준 이사 Miran, “이란 전쟁에도 금리 인하 필요”

- 친 트럼프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연준 이사 Stephen Miran는 “이란 전쟁이 미 경제에 끼치는 여파를 판단하기 너무 이른 시점에서 금리 인하는 계속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그는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이 자신의 노동시장과 물가에 대한 전망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그는 현재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금리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 Crash Wipes Out Leveraged Bets in Korea, Sowing Panic

한국 증시 급락, 레버리지 투자 손실로 패닉 상태

- 한국 증시는 폭락했다. 코스피는 8%, 10%, 12%씩 점차 떨어지면서 서울의 금융시장에 공포가 확산됐다.
- 이틀간 코스피 하락률은 18%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고, 약 6천2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
- 이번 사태는 레버리지와 신용거래에 의존한 투자, 단기 매매가 지배적인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차입을 거의 확실한 추가 수익 수단으로 여긴 투자 문화의 리스크가 노출된 셈이다.

Iran Conflict Sparks Sharp Selloff in Korean Stocks



기사

[중동 위기]

Bloomberg: The Iran War's Most Precious Commodity Isn't Oil

중동 위기의 핵심 자원은 오일이 아닌 '식수'

- CIA는 중동에서 식수를 “전략적 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식수 공급을 위해 담수화 시설(desalination plants)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담수화 시설은 공격에 취약하며, 파괴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Jubail 지역 담수화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사우디 수도 리야드는 식수 공급이 끊겨 일주일 내에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
- 이란은 담수화 시설을 가동하는 UAE의 발전소를 공격했으며, 이러한 시설을 목표로 삼는다면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물은 이번 분쟁에서 잠재적 ‘지정학적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기사

[물류]

Bloomberg: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Halt Bookings, Divert Vessels Due to Middle East Risks

중동 위기로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 예약 안 받아

- 중동에서 증가하는 안전 위협으로 인해 컨테이너 선사들이 예약을 받지 않고 선박 운항을 우회하고 있다.
- 글로벌 선사인 Hapag-Lloyd는 북쪽 걸프(Upper Gulf) 지역으로의 모든 예약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중단했다.
- Maersk도 인도 대륙과 UAE, 바레인, 카타르,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항구를 연결하는 모든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
- MSC는 페르시아만 항로의 운송에 대해 항해 중단을 선언했다.

기사

[무역 전쟁]

WSJ: Bessent Says 15% Global Tariff Could Begin This Week

연방 재무장관 “다음 주부터 글로벌 관세 15% 시행”

- 연방 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트럼프가 지난달 시행하는 글로벌 관세 10%를 15%로 올려 다음주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시행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연방정부는 오랫동안 유효할 수 있는 무역법에 기초한 관세들을 조사/시행하게 된다고 CNBC 회견에서 그는 밝혔다.
- 그는 “관세는 향후 5개월 이내에 예전의 관세율로 돌아갈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10% 관세는 지난달부터 시행되었다.

기사

[주택]

CNBC: Weekly mortgage demand surged 11% higher last week, as rates sat near 4-year low

지난주 미 주택 모기지 신청 수요 11%나 증가

- 미 주택 모기지율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30년 고정 기준 6.09%를 유지하면서 주택 용자와 채용자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주의 모기지 용자 기준은 전주보다 전체적으로 11%가 늘어났다. 주택 채용자 신청자 숫자는 지지난주에 비해 14.3% 증가했고 작년 동기간에 비해 109% 늘었다.
- 바로 최근에도 모기지율이 0.53 포인트에서 0.52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현재 모기지율은 지난 2022년 이래 가장 낮았다.

기사

Bloomberg: Homeowners Stay Put for 12 Years, Stifling the US Housin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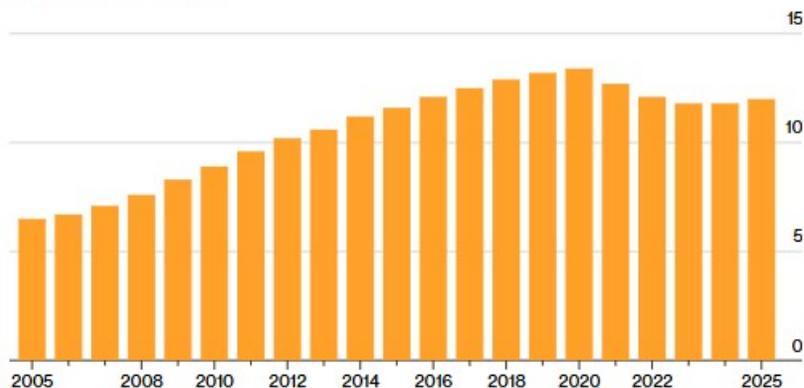
미 주택 소유자, 오래 거주...평균 12년

- 미국 주택 소유자들이 집에 오래 머무르게 됨에 따라 많은 신규 주택 구매자들이 집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주택 중개업체 Redfin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주택 거주 기간은 12년으로, 20년 전의 절반 수준보다 거의 두 배 길다. 집주인들이 쉽게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대출 비용과 이사 비용에다 기존 주택 가격 상승 때문이다.
- 한편 주택 거주 기간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13년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낮은 금리와 유연한 근무 정책에 따른 매수 열풍으로 잠시 거주 기간이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직장도 오래 머무르는 편이다.

American Homeowners Are Slow to Move

Typical property owners are staying in their homes longer

■ Median tenure in years



Source: Redfin

Note: Tenure for 2025 is defined as the number of years between the most recent sale date of a home and December 1, 2025.

기사

[오일]

YahooFinance: Oil prices steady after President Trump offers tankers protection through Strait of Hormuz

오일가 안정세...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보호하겠다”

- 중동 사태에 따른 해운 위기 우려는 잠시 진정됐다. 트럼프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과 다른 선박에 대한 경호와 더불어 운항 보험도 보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 이 같은 보장은 급등하던 유가가 다소 진정됐다.
-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필요하다면 조속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을 미군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그런데 관련 Kpler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공급의 약 5분의 1이 매일 통과하는 이 중요한 글로벌 해운 병목 지대에서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거의 중단 수준으로 떨어졌다.

NY Mercantile - Delayed Quote - USD

Brent Crude Oil Last Day Financ (BZ=F)

☆ Fo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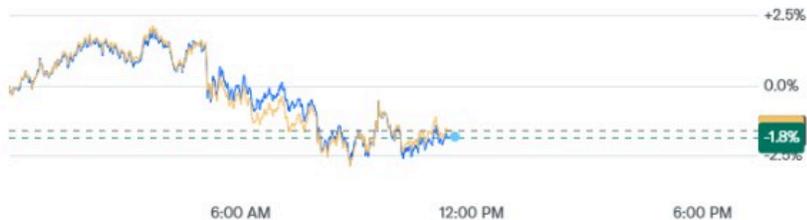
View Quote Details

81.21 -0.19 (-0.23%)

As of 11:22:13 AM EST. Market Open.

BZ=F CL=F

Advanced Chart



1D 5D 1M 6M YTD 1Y 5Y All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